

유명과 무명 사이

July, 2016 | 천희란 에디터

유명과 무명 사이

By Chun Heeran, **Feature Editor**

하루아침에 유명세를 얻었다가도 일순 차갑게 잊혀지는 세상. 대다수 사람들이 '유명'을 좇지만 사실 21세기에는 완전한 유명도, 완전한 무명도 없다. 국제갤러리의 새로운 전시 <유명한 무명 (Wellknown Unknown)>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에게 출현과 소멸, 등장과 은둔, 유명과 무명의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. 알려지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강박과 공포에 사로잡힌 동시대를 바라보는 김희천, 남화연, 김영나 등 최근 주목받는 일곱 작가의 시선.

1 이윤이 작가의 '한편... 자식' 2 김희천 작가의 'Soulseek/Pegging/Air-twerking'

○ 6.28-7.31 A 54 Samcheong-ro, Jongno-gu, Seoul T 02-735-8449

